

바닥은 어디?... 추락하는 국내 증시, 4분기 전망도 어둡다

美 긴축 지속, 강달러 등 겹악재 코스피 지수 장중 연저점 기록 삼성전자·네이버 등 52주 신저가 호재 부족... 2000선까지 밀릴 듯



지난달 30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2170.93)보다 15.44포인트(0.71%) 내린 2155.49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증가 기준 연중 최저치다. /뉴시스

연저점을 지속해서 경신해온 코스피 지수가 4분기에도 추가하락 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3분기 실적 전망도 어둡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4분기 코스피가 2000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 세계적 금리인상, 달러 강세, 유럽 경기 침체 우려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며 지난 30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0.71% 하락한 2155.49에 거래를 마치며 2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코스닥은 전일보다 2.42% 내린 672.65에 마감했다. 코스닥 또한 장중 661.65까지 떨어지며 연저점을 기록했

다. 특히 국내 대표주인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도 연일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

10월에도 코스피는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준이 추가로 사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데다 원 달러 환율의 불안정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3분기 실적도 좋지 않아 당분간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

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컨센서스 추정치 관 수 3곳 이상인 250곳 상장사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 줄어든 53조595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10월에도 긴축적인 금융환경은 지속될 것이 자명한 가운데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감도 깊어질 수 있다"며 "미국 기업들의 경우 강달러에 따른 실적 둔화가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이고, 주변국 기업들은

경기침체를 빌미로 매출 전망을 낮춰 제시할 공산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이 증시 반등을 견인할 호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2000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침체 우려와 달러 강세로 글로벌 금융 시장이 불안해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어려울 것"이라며 4분기 코스피 예상 범위로 2070~2200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 연준의 강

한 긴축 지속으로 상대적으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경기 민감도가 높은 종목과 실적이 좋은 종목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현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 대세 상승 구간에서도 금리상승 시기에는 가치주의 성과가 더 양호했다"며 "금리상승에 따른 투자의 기회비용 측면 및 일드(배당)에 대한 니즈를 감안할 때 이러한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4분기 코스피 예상 밴드 하단을 2000선으로 전망하면서 투자자들의 증시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민감 수출주(자동차·2차전자·정유·건설), 경기방어 내수주(방산·미디어·음식료·유통), 낙폭과대와 3분기와 연간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주, 낙폭과대 고퀄리티 종목, 낙폭과대 고배당주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원래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변동성 장세... 복리효과 '월배당 ETF' 주목

국내 월배당 ETF 상품 총 12개 하방 방어, 안정적 배당에 인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 장기화에 대한 공포로 세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주식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하방 방어 목적과 배당금 재투자에 따른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가 주목받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월배당 ETF는 총 12개로 집계됐다. 지난 8월부터 기존의 분배금 지급 주기를 월 단위로 변경한 ETF가 8개, 새로 상장한 월배당 ETF가 4개다. 월배당 ETF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자산운용사들이 월 배당 상품을 대거 늘리는 추세다.

지난 6월 신한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는 'SOL 미국 S&P500' 상품을 출시했다.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우위를 필두로 현재 순자산 총액 338억원으로 상장 이후 3배 넘게 규모가 커졌다.

이후 급증하는 월배당 ETF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줄줄이 월배당 ETF를 내놓았다. 기존 ETF 분배금 지급 주기를 월 단위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특히 박스권 장세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커버드콜 ETF가 최근 잇따라 출시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과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배당프리미엄액티브'다. 커버드콜 전략은 기초자산을 매수하고 동시에 콜옵션(매수청구권)을 매도해 옵션 매도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전략이다.

혹시나 기초자산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배당금과 옵션 매도 수익으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단, 예상치 못하게 주가가 크게 오르면 일반 ETF보다 부진한 수익률을 보인다.

두 상품 모두 해외 자산운용사로부터 해당 ETF를 수입해 출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자회사 글로벌X의 월배당 ETF인 GLOBAL X NASDAQ 100 COVERED CALL

(QYLD)의 국내 버전을,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자산운용사 앰플리파이(Amplify)의 Amplify CWP Enhanced Dividend Income ETF(DIVO)의 국내 버전을 각각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연금투자 수요 등으로 인해 향후 월배당 ETF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해인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미국 시장지수에 투자하되 ETF상의 구조로 하단을 어느 정도 방어하거나 월배당 상품을 통해 변동성 장세를 버티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자산 혼합 여부 및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하방 방어 목적, 자산 배분 목적, 월 배당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월간 지급으로 정책이 변경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마다 배당금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본형 ETF 대비 총보수가 대체로 비싸다는 점은 투자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서울 아파트값 18주 연속 하락

집값 하락세 장기화 조짐 전주 대비 0.19% 떨어져

집값 하락세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9월 26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하락했다. 하락폭은 전주(-0.17%)보다 0.02%포인트 확대됐다.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하락(-0.01%) 한 뒤 18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강북권에서는 노원구(-0.28%→-0.33%)가 상계·중계·하계동, 도봉구(-0.31%→-0.32%)는 방학·창동, 서대문구(-0.25%→-0.28%)는 북가좌·남가좌동 대단지, 종로구(-0.25%→-0.26%)는 흥파동 위주로 하락폭이 커졌다. 지역개발 기대감이 있던 용산구(-0.10%→-0.13%)의 경우에도 하락폭이 확대됐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0.22%→-0.23%)가 문정동 구축과 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지난달 15일 하락 전환한 서초구(-0.07%→-0.05%)는 하락폭이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시장의 우려가 확대 중인 가운데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면서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인 하락 거래가 발생해 전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거래 절벽'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9월 26일 기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낮아진 78.5를 기록하며 21주 연속 하락했다.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엘스' /김대환 기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수락산벨리체'는 지난 8월 전용면적 114㎡가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6월 거래가격(10억원) 대비 1억5000만원 하락했다.

도봉구 창동 지역에 위치한 '삼성래미안'은 지난 4월 전용면적 66㎡가 9억8000만원에 거래됐지만, 4개월 만에 거래가격(7억원)이 2억8000만원 떨어졌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엘스'는 지난달 전용면적 59㎡가 16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8월 거래가격(17억5000만원) 대비 1억5000만원 하락했다.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현대'의 경우 지난 5월 전용면적 116㎡가 10억8500만원에 거래됐지만, 4개월 만에 거래가격(9억3200만원)이 1억5300만원 떨어졌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금리 인상 여파로 매수자들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는 폭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어 하락 추세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이달 첫째 주 전국 13곳서 6842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10월 첫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사전청약 포함)에서 총 6842가구(일반분양 533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인천 서구 청라동 'e편한세상시티청라(오피스텔)',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음성자이센트럴시티', 전남 광양시 마동 '더샵광양라크포엠' 등에서 청약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주택은 경기 평택시 장당동 '평택석정공원화성파크드림', 인천 중구 운남동 '호반써머스카이센트럴 2차', 경북 경산시 압량읍 '경산2차아이파크' 등 6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GS건설은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일원에서 '음성자이센트럴시티'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16개동, 전용면적 59~116㎡, 총 1505가구 규모다.

단지는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과 연계되는 평택~제천간고속도로

음성IC와 인접해 있다. 주변에는 용천초, 무극초중교, 금왕교육도서관 등 교육시설도 위치해 있다.

호반건설은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A56블록에서 '호반써머스카이센트럴 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1층, 8개동, 전용면적 74~101㎡, 총 583가구로 구성된다.

단지에서 인천대교(제2경인고속도로), 영종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운서역을 통한 서울 서부권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인근에는 운서초, 영종중고교, 인천국제고, 인천과학고, 하늘고 등 학교시설이 위치했다.

/김대환 기자 kdh@